

손오공

오승은 지음
지경사 / A5신 / 108면 / 2500원

들원숭이 손오공이 삼장법사를 따라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천축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서유기」를 흥미진진하게 풀어썼다. 본래 「서유기」는 삼장법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씌어졌지만, 손오공을 주인공으로 삼아 재미를 더하게 된 것은 명나라 오승은에 의해서이다.

만수산 신선의 과일을 훔쳐 먹는 등 말썽을 부리지만, 괴물을 만나 갖가지 도술을 부려 삼장법사 일행을 보호하는 손오공의 활약이 술가쁘게 펼쳐진다. 재미있는 원색 그림을 곁들여 저학년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별이 몰려온 마을

박상규 지음
대원사 / A5신 / 231면 / 2500원

지금 농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도시 사람들의 생활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다룬 창작동화집. 이 책에 수록된 6편의 동화는 이야기마다 농촌의 소중함과 도시생활에서 잊기 쉬운 정을 일깨워준다.

공장이 들어서자 모래내마을의 생활이 달라지고 국민학교에서도 서울서 전학온 똑똑한 어린이들(별)의 활약으로 본래 있던 어린이들은 우울해진다. 「별이 몰려온 마을」을 비롯해서 「고민하는 아이」 「도둑맞은 사람들」 「조각가 아저씨의 실수」 「이상한 시험」과 장편동화 「시골에서 온 소녀」가 실렸다.



꼬마 니콜라

르네고시니 지음 / 신경심 옮김
바른사 / A5신 / 255면 / 2500원

주인공 니콜라와 그의 친구들이 벌이는 짓곳은 장난과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세계를 그린 소설.

늘 소동을 피우는 개구장이 주인공 니콜라, 반의 우등생이자 선생님의 애제자 아냥, 꼴찌를 맡아놓고 하는 끌로페르, 항상 뽕가를 먹는 알쎬스트, 호루라기를 좋아하는 뽀뽀, 아빠의 힘을 믿고 소동을 피우는 조프르와, 친구를 잘 때리는 외드, 발길질의 명수 맥스,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탐색가 조아심. 이들이 저지르는 장난들은 동심의 세계를 투명하게 비춰주며, 장자꼬 썬베의 독특한 그림이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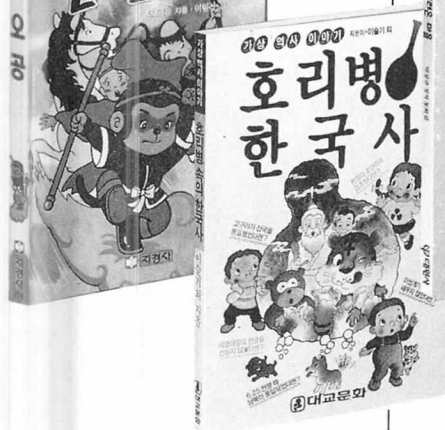


춤추는 체중계

김학선 외 지음
지경사 / A5신 / 108면 / 2460원

6학년 신체검사를 앞두고 유라는 '살빼기 5일작전'에 들어간다. 같은 반의 보림, 지은이와 함께 '공포의 삼뽕녀'라고 남자애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있다. 세명은 체중 순위를 뒤엎으려고 경쟁적으로 다이어트를 해왔다. 신체검사 하는 날 보림이는 왼발을 내린 채로 체중계에 올라섰기 때문에 체중계의 바늘이 흔들려 아이들의 웃음을 산다. 결국 체중 순위는 본래대로 보림, 유라, 지은이 순이었고, 세명은 함께 영양보충하러 간다는 폰트.

김학선, 이동렬, 이지은, 주경희 4명이 각각 9편씩 36편의 폰트를 묶었다.



호리병 속의 한국사

이슬기 외 지음
대교문화 / A5신 / 220면 / 2500원

「환웅이 호랑이와 결혼했다면?」「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지 않았다면?」「6·25전쟁 때 남북이 통일되었다면?」 우리 역사에 나오는 인물·사건·시대를 가상해서 우리 역사를 재미있게 쓴 가상 역사이야기. 가상 역사이야기라고 해서 허무맹랑한 내용이 아니라, 상상력을 통해 역사를 여러모로 살핍으로써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도록 엮여졌다. 한편 실제 역사를 정리한 '역사교실'을 곁들여 역사공부도 아우를 수 있게 했다. 아동작가이자 현직교사인 박상재, 소중애, 송재찬, 오인숙, 이슬기 5명이 나눠 썼다.

도깨비마을의 황금산

윤수천 지음
건지사 / A5신 / 93면 / 2500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다섯 편의 창작동화를 엮은 책. 「도깨비마을의 황금산」은 가난한 화가인 주인공의 허황된 욕심을 비판한 교훈적인 동화. 어느 여름밤 우연히 도깨비마을에 들어서게 된 화가는 도깨비들에게 그림을 그려준다. 도깨비마을에 있는 황금산에 욕심이 든 화가는 그 댓가로 황금산을 자신의 마을로 운반한다. 황금산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그 사이 화가의 머리와 수염이 하얗게 새어버린다는 이야기.

이밖에도 「달이 생긴 이야기」 「짐승구름」 「백년꽃」 「도둑과 달님」이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면서 교훈을 담고 있는 동화들이다.

개구쟁이 민주공화국

편집부 엮음
글수레 / A5신 / 245면 / 2500원

자유주의교육으로 유명한 영국의 섬머힐학교 생활을 묘사한 동화. 보통사람이 들으면 깜짝 놀랄 섬머힐생활에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는 걸까? 서더랜드 닐교장은 엄격한 규칙과 숙제의 홍수 속에서 아이들은 정신적인 상처를 받는다고 여긴다. 그래서 섬머힐에서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 싫으면 안해도 좋고, 선생님을 친구처럼 부를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철저히 존중받고 완벽한 자유를 누리면서 사랑과 자유에 대해 배우는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을 그리고 있어 '어린이를 어떻게 사랑하고 가르칠 것인가'를 생각할 기회를 준다.

거꾸로 산수교실

마릴린 번즈 지음 / 편집부 옮김
대교문화 / A5신 / 189면 / 2500원

따분하고 쓸모없는 공부라고 외면하기 쉬운 수학을 게임·수수께끼·마술·이야기 등의 형식으로 쉽게 이해하도록 안내한 책.

더하기·빼기·곱하기·나누기 4칙연산을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응용함으로써 지능을 개발하도록 엮여졌다. 보도블럭에 선을 그어 분할하는 방법,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을 유형별로 조사·분류하는 놀이, 네모 속에 가능한 한 많은 점을 찍는 놀이 등 다양한 놀이로 간단한 셈부터 어려운 수학지식까지 재미있게 터득할 수 있다. 상세한 그림을 곁들여 이해를 돕고 있다.